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04.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9. 12. 04. 화	총 4매 (별첨 0건)

정치하는엄마들, 12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할 때까지 하는 필리버스킹(필리버스터+버스킹)

- △ 유치원 3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니 자유한국당은 사당(私黨)인가?
- △ 선거법과 민식이법 등을 거래하자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격을 상실했나?
- △ 페이스북 라이브 www.facebook.com/politicalmamas/videos/

지난 29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여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던 민식이법·하준이법 처리가 무산되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 않으면 민식이법 등 처리하겠다’고 법안거래를 언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어제(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것도 전체 안건 필리버스터라는 비상식적인 무리수와 어린이생명안전법을 협상카드로 꺼낸 것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선거법·공수처법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빼 나머지 196개 안건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이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며, 본회의 개의 중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선거법·공수처법을 직권 상정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밝힌대로 소속 의원 108명이 1인당 4시간씩 토론하면 총 432시간이고, 29일 현재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74시간에 불과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실시 중에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토론이 종결되므로, 안전 한 개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해도 정기국회 끝까지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일까?

29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199개 안건 중 197~199번이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었다. 즉 유치원 3법을 막고 싶은데,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니 비난여론이 두려워서 전체 안건에 신청하는 몰타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유치원 비리보장법)의 근간을 마련한 장본인이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학교법인 흥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자녀이고 흥신유치원 나경민 원장의 언니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유치원 3법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수용되지 않은 회계분리(에듀과인 무력화), 시설사용료(교육환경개선부담금)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국 4천여 사립유치원 소유주들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쥐고 흔드는 게 공당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나도 엄마야, 왜 못 믿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참사의 유가족인 태호 엄마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활동가들은 하준이 가족, 태호 가족, 해인이 가족, 민식이 가족과 함께 하면서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참담한 정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이크를 들기로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어제(3일)부터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킹(필리버스터+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매일 24시간 외치고 싶지만, 활동가 대부분이 양육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씩 진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사항

1.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2. 유치원 3법을 막고 싶다면 꼼수부리지 말고, 유치원 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 신청하라.
3.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물론 청년기본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조건 없이 즉각 협조하라.

우리는 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필리버스킹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심연우 활동가



윤일순 활동가



백운희 활동가



김정덕 활동가